

신약 시대 구약의 정결법 실천에 관한 고고학적 고찰

임미영*

1. 들어가는 말

정결은 고대 세계의 종교적 행위에서 기록과 연결하여 자주 등장한다. ‘깨끗한’과 ‘부정한’이라는 용어는 현대 사회가 생각하는 청결이나 오염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¹⁾ 이 용어들은 한 사회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문화, 관습의 범주와 관련된 것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범주를 벗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이 있었다. 덕분에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결의 규정은 각각 달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도 독특한 정결법이 있었다. 레위기 5장-15장 사이, 민수기 9장, 19장,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법 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대 가나안을 비롯한 다른 성서의 자료들에서 장애인이나 병자에 대해 그다지 정결을 요구하거나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을 보아, 구약의 정결법은 주변 민족들과 구별하는 독특한 관습이었을 것이다.²⁾ 그러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을 보아서 이 율법의 규정들을 실천했는지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다.³⁾ 다만 구약

*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구약학.

1) Th. Hentrich, “The Purity Laws as a Source for Conflic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AJBI* 30-31 (2004-2005), 5.

2) *Ibid.* 6.

3)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 기록 연대를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기에 구약 시대에 율법이

시대의 무덤들이 도시 밖의 경계에 위치한 것이 발견되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만큼은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신약 시대에 와서 정결법은 더욱 더 구체화 되었고 이를 실천에 옮겼던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다. 신약 속의 여러 일화들 속에서 우리는 정결법이 행해졌음을 목격하게 된다. 또한 구약의 정결법과 신학적 해석에는 차이가 있으나 신약 전후 시대에 기록된 쿰란 문서나 랍비 문헌들에서도 정결법을 찾아 볼 수 있다.⁴⁾ 문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결법은 신약 시대 독특한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본고는 이러한 흔적을 찾아 신약 시대에 구약의 정결법이 어떻게 실천되었으며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2. 연구사와 연구방법

신약 시대 실천된 구약의 정결법에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유대교 안에 이 정결법이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구약의 정결법과 비교하여 어떻게 신학적으로 분석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는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의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⁵⁾와 그녀의 연구를 인용한 다양한 논문들이 있다.⁶⁾ 일부 학자들은 유대교 안에서 구약의 정결법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연구

철저히 지켜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곤 한다. 본고는 구약이나 율법의 기록 연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문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 4) 구약과 쿰란문서의 정결법 해석에 대한 신학적 차이는 이윤경,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논단』 15:4 (2009), 144-161를 보십시오.
- 5) M.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2003).
- 6) Hentrich, “The Purity Laws as a Source for Conflic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5-21; C. Prevel and C. Nihan, eds.,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Volume: 3 (Leiden: Brill, 2013).

하기도 하였다.⁷⁾ 최근 고고학의 발전으로 정결법과 관련된 흔적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몸을 씻는 정결탕(미크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⁸⁾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신학적 해석에 관련된 것이기에 정결법이 행해진 물질적 자료에 대한 언급은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쿰란 문헌의 정결법과 구약의 정결법을 비교하면서 이윤경이 쿰란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정결법 실천의 예로 언급⁹⁾하였으나 그 역시 신학적 해석을 위한 도구 일뿐이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서와 관련된 삶의 흔적들을 찾는 연구는 최근 저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작업으로 2011-2012년 사이 “기독교와 유대교”라는 주제 아래 1세기 유대인의 관습을 논하면서 정결법과 관련된 흔적들을 한국성서학연구소의 「성서마당」에 간단하게 발표한 바 있다. 이 글들은 본고에서 보다 확장하여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본고는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의 정결법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의 독특한 관습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그 흔적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다루어질 소주제는 돼지 뼈, 돌 항아리, 무덤, 그리고 미크베(מִקְוֵה, 정결탕)이다. 먼저 각 소주제와 관련된 구약의 구절이 언급된 후 신약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후대(3세기경)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결법을 지켰는지 알기 위해 미쉬나의 내용에서 자주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문헌을 살펴 본 후 각 주제와 관련된 흔적이 어떠한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이 흔적들을 기초로 하여 각 규정은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특별히 당시의 관습을 통해 돌 항아리(요 2:6)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정결례(καταρτισμόν)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바른 해석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우리는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정결법의 실천을 통해 주변과는 구별된 삶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7) J.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J. Schwartz, ed., *Purity and Holiness. The Heritage of Leviticus, Jewish and Christian Perspectives Series 2* (Leiden-Boston-Cologne: Brill, 2000).

8) 각각의 소주제를 토론할 때 마다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물들이 제시 될 것이다.

9) 이윤경,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논단」 15:4 (2009), 144-161; “쿰란공동체의 안식일 이해: 안식일 법, 정결례, 예식” 「신학사상」 149 (2010), 41-64.

3. 정결례의 흔적

3.1. 돼지 뼈¹⁰⁾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레 11: 3-8).

구약의 정결법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레위기 11장 3-23절의 음식에 대한 규정일 것이다. 이 구절은 짐승 중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부정한 것으로 해당되는 짐승은 낙타, 토끼, 사반, 돼지이며 조류 중에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 까마귀 종류, 타조와 부엉이 박쥐 등이 있고 오징어, 새우, 조개 같은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선이 있다. 이들이 왜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었는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의 이미지가 더럽거나 악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¹¹⁾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위생상의 문제로 보는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용을 금지하였을 것이다.¹²⁾

신약에서 부정한 짐승들과 관련된 구절은 행 10장에 등장한다.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이들이었지만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있어 마치 부정한 짐승처럼 속되

10) 본 소주제의 글은 임미영,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이스라엘연구」 1 (2009)에서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이 학술지는 1호만이 출간된 이후 폐간되었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주제는 중요한 논제가 되어 뒷글에서 구약시대와 관련한 고고학적 토론들은 생략하고 신약시대와 관련한 부분들을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11) 임미영,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성서마당」 가을호 (2011), 125.

12) 임미영,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125.

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이들로 생각되어진 듯하다. 이러한 견해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증명된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가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행 10: 11-15).”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만나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짐승들 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돼지로, 심지어 현대 유대교에서까지 금기시되고 있다. 돼지는 소나 양 같은 다른 가축들을 키우는 것에 비해 노동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단시간 내에 고단백질을 제공하는 동물이다. 쓰레기까지 먹어 버리는 돼지의 습성은 한 민족이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면서 쉽고 빠르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축산에 있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가축이었다.¹³⁾ 돼지는 우리 안에 가두고 키운다. 양이나 염소처럼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하면서 키우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다.¹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때 유목을 하였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새롭게 정착한 민족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돼지는 환영받을 만한 짐승이어야 하지만 율법은 이를 금지하였다.¹⁵⁾ 반면에 유사한 환경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13) B. Hesse and P. Wapnish, “Archaeozoology,” A. Reader and S. Richard, eds., *Nea Eastern Archae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22.

14) Ibid. 22; B. Hesse and P.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N. A. Silberman and D. Small, eds., *The Archaeology of Israel: Constructing the Past, Interpreting the Present* (Sheffield: Jsots Series, 1997), 241-242.

15) Hesse and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지중해변 정착 초기 상당한 양의 돼지를 식용했음이 아스글론 유적지에서 증명되었다.¹⁶⁾ 그러나 모든 블레셋 유적지에서 돼지가 선호된 것도 아니고 아스글론에서도 점차 돼지 뼈의 양이 적게 발견되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돼지를 금기시함으로 자신들을 구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구약 중간사에서 유대인들이 돼지를 식용하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음을 알수 있는 일화는 수전절에 관련된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명절인 수전절(요 10: 22)은 기원전 164년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4세로부터 모던 출신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기원전 168년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한 안티오크스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으며 유대인들을 박해했다.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했고 부정한 음식으로 금기시 되던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렸다. 결국 성전을 탈환하고 제일 처음 유대인들이 한 일은 정결 의식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정결법 중 돼지를 먹지 않는 것이 실천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동물학(Archaeozoology)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브라이언 헤세(Brian Hesse)와 폴라 왓니쉬(Paula Wapnish)¹⁷⁾를 선두 주자로 하는 “고동물학은 유적지들에서 발견되는 뼈라든가, 이빨 등 동물이 남기고 간 흔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역의 고대 환경과 기후뿐만 아니라 인류의 습관과 동물과의 관계 변화 역시 추론해 낼 수 있어 현대 고고학에 있어 필수적인 학문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⁸⁾ 고동물학은 최근 근동지역의 고고학에 도입되었는데 고대 문서와 동물의 흔적들을 비교 고찰하여 고대인들의 식습관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핑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은 유적지의 흔적을 통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한 민족의 민족성을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Ancient Near East?” 261-263.

16) Ibid., 248.

17) Hesse and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238-270; “Archaeozoology,” 17-26.

18) 임미영,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50. 고동물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임미영의 글을 참고.

말하기도 했다.¹⁹⁾

돼지 뼈의 발견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돼지는 기원전 6,000년째부터 키웠다는 것이다. 돼지 뼈는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에는 활발하게 식용되다가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600-1,200년)에 와서 현저히 감소하였다.²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철기 I 기(기원전 1,200-1,000년)에 아스 글론, 담나, 에그론 같은 블레셋 유적지를 중심으로 많은 돼지 뼈가 발견되었다.²¹⁾ “같은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유적지들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돼지 뼈만 발견되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철기 II 기(기원전 1000-586년)에도 계속되었다.”²²⁾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다윗 성에서 약간의 돼지 뼈가 발견되었고 대표적인 행정 도시였던 라기스의 철기 II 기 층에서도 발견된 뼈 3098개 중 18개의 돼지 뼈가 있었다.²³⁾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학자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돼지를 먹지 않았다고는 주장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²⁴⁾ 블레셋 사람들도 점차 돼지를 먹지 않거나 텔 카실레 같은 블레셋 유적지에서는 돼지 뼈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습이었음을 말할 수는 없다.²⁵⁾

19) I. Finkelstein, “Pots and People Revisited Ethnic Boundaries in the Iron Age I,” N.A. Silberman and D. Small, eds., *The Archaeology of Israel: Constructing the Past, Interpreting the Present* (Sheffield: Jsots Series, 2003), 227.

20) Hesse and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240-247.

21) *Ibid.*, 247.

22) 임미영,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126.; Hesse and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249.

23) P. Croft, “Archaeozoological Studies,” D. Ussishkin,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Emery and Claire Yass Publications in Archaeology,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2004), 2289.

24) Hesse and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261-263; E. Bloch-Smith, “Israelite Ethnicity in Iron I: Archaeology Preserves What is Remembered and What is Forgotten in Israel’s Histor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2:3 (2003), 423.

25) Bloch-Smith, “Israelite Ethnicity in Iron I: Archaeology Preserves What is

고동물학은 오히려 헬라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의해 돼지를 식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²⁶⁾ 예를 들어 라기스의 헬라시대 이후 층에서는 돼지 뼈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²⁷⁾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상부 갈릴리의 카나프에서 발견된 동물 뼈 중에 돼지뼈는 1.8%였으며 카즈린에서는 0.2%만이 발견되었다.²⁸⁾ “로마 시대 유대 회당이 있었던 갈멜산의 키르벳 수마카에서 발견된 715개의 뼈 중 단 하나만이 돼지 뼈였다. 중세 시대 같은 장소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주했었는데, 발견된 동물 뼈 들 중 7.5%가 돼지 뼈인 것으로 보아 두 문화 사이 확실히 다른 식습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반면에 같은 지역 로마인들의 점유지였던 텔 아나파의 경우 양과 염소의 뼈와 거의 동일한 양의 돼지 뼈가 발견되었다.³⁰⁾ 로마인들이 주로 살았던 골란 지역에서도 돼지고기를 생산했는데³¹⁾ 이 지역의 예는 복음서에서도 목격되고 있다(마 8:28-34; 막 5:1-20; 눅 8:26-39). 이곳은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불렸던 곳으로 예수께서 이 지방에 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뛰어나와 소리쳐 간구하였고 마침 산 곁에서 돼지 떼가 먹고 있어 그리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금기 음식으로

Remembered and What is Forgotten in Israel’s History,” 423.

26) Hesse and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249.

27) Croft, “Archaeozoological Studies,” Table 33.2.

28) 임미영,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57, 재인용. 원 자료 B.J. Grantham, *Modern Buata and Ancient Qazrin: The Ethnoarchaeology of Cuisine in the Golan Heights* (MA thesis: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Alabama, 1992).

29) 임미영,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57;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126 재인용; 원 자료 L. Horwitz, E. Tchernov, and S. Dar, “Subsistence and Environment on Mount Carmel in the Roman Byzantine and Medieval Periods: The Evidence from Kh. Sumanqa,” *Israel Expedition Journal* 40 (1997), 287-304.

30) 임미영,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27;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126 재인용; 원자료 Hesse and Wa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249.

31) D. Urman, *The Golan*, BAR International Series 269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1985), 149.

지켰다는 전통이 헬라와 로마시대에는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³²⁾ 헤시오와 왈니쉬는 돼지를 먹지 않는 식습관은 포로기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결법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것이며 페르시아와 헬라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관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³³⁾

1세기 유대인들의 유적지에서는 돼지 뼈와 더불어 조개나 오징어, 새우 등을 먹은 흔적을 발견하기 또한 어렵다. 때로 고등무지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식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염색액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⁴⁾

3.2. 돌 항아리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레 11:32-34).

정결법은 부정하다고 정의된 짐승, 새, 물고기의 주검이 그릇에 닿는 것 마저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 부정한 것을 담은 그릇도 함께 부정하여질 것이기에 그릇은 물에 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질그릇(도기)에 닿았다면 씻는 것만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없었다. 부정한 것을 담았던 질그릇은 깨뜨려 다음에 담는 음식이 부정함을 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릇과 관련된 정결법

32) 임미영,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57.

33) Hesse and Wanpnish,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261-263.

34) Ph. King and L.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and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고대 이스라엘 문화』, 임미영 역 (서울: CLC, 2014), 228-229.

의 관습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καθαρίζετε)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마 23:25-26)”는 구절을 통해 신약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미쉬나(משנה) 토호로트(תורת, 정결법) 켈림(קלים, 용기) 10:1 은 “꼭 맞는 뚜껑으로 단단하게 덮었을 때 다음과 같은 재료로 만든 용기들이 담은 내용물은 부정하지 않다: 가축의 배설물, 돌, 탄산나트륨, 물고기 뼈, 굵지 않은 흙, 나무로 만든 그릇들은 항상 깨끗하다”³⁵⁾고 말하고 있다. 덕분에 1세기 유대인들은 부정해 질 때마다 깨뜨려 버려야 하는 질그릇(도기) 보다는 돌로 만든 그릇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쉬나의 이러한 정결법이 신약 시대 유대인들에 의해 실천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요한복음 2:1-11에서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는 가나에서 열린 혼례에 참석하고 있었다. 가나는 나자렛과는 그리 멀지 않은 마을로 분명 신랑과 신부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최근 이곳에서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을이 발견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하게 부으라고 하였고 포도주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돌로 만든 용기를 사용한 증거와 특별히 돌로 만든 항아리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20세기에 와서이다. 1960년대 쿰란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변에서의 활발한 발굴은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로 만든 용기들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한 바 있다.³⁶⁾ 시몬 깁슨(Shimon Gibson)³⁷⁾과 이자크 마젠(Yitzhak Magen)³⁸⁾은 이 용기들을 체계적으로

35) 그 외 미쉬나 파라(פירה, 압소)5:5; 오홀로트(והלוח, 장막) 5:5; 샤밧(שבח, 안식일) 16:11를 참조.

36) J.K. Zagenberg,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C. Prevel and C. Nihan, eds.,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Volume 3* (Leiden: BRILL, 2013), 545.

분류하면서 동시에 제작 방법과 제작된 장소들(예루살렘 미문 근처, 히브리 대 근처, 히즈마, 제벨 무카베르, 텔 엘-풀, 레이나)³⁹⁾도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연구 덕분에 돌로 만든 용기들은 제 2 성전시대 유대인들의 종교관습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유물로 고착되었다.⁴⁰⁾

돌로 만든 용기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나리(*nari*) 석회석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돌을 통째로 깎아 만들었다. 재료의 성격 상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토기에 비해 상당히 값비싼 물품이었다. 돌로 만든 용기들에는 컵, 사발, 쟁반, 접시, 항아리, 테이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용기는 칼랄(*Kallal*, 아람어로 돌 항아리)이라 불리는 항아리이다. 칼랄은 유일하게 대용량을 담을 수 있는 통이지만 다른 용기들에 비해 많은 양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크기라든가 제작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⁴¹⁾ “칼랄은 팔레스타인 외 다른 지역에서 청동이나 화강암, 대리석, 알라베스터 같은 재료로 만든 크레터(*crater*)나 칼리스(*calyces*)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⁴²⁾ 헬라 문화에서 이러한 용기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 놓는 용기로 입구가 넓고 연회시 포도주 원액⁴³⁾과 물을 섞는 용기로 사용하였다. 칼랄은 이러한 용기

37) S. Gibson, “Stone Vessels of the Early Roman Period from Jerusalem and Palestine. A Reassessment,” G. C. Bottini, et al., *One Land—Many Cultures: Archaeological Studies in Honor of Stanislaw Loffreda OFM*, Studium Biblicum Franciscanum, Collectio maior 41 (Jerusalem: Franciscan Printing Press, 2003), 287-308.

38) Y. Magen, *The Stone Vessel Industr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Excavations at Hizma and the Jerusalem Temple Mount*, Judea and Samaria Publications 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2).

39) 최근 2016년 나자렛 근처 에이노트 아미타이(‘Einot Amitai) 유적지에서도 돌로 만든 용기를 제작했던 작업장이 발견된 바 있다. <https://www.biblicalarchaeology.org/daily/ancient-cultures/daily-life-and-practice/jewish-purification-stone-vessel-workshop-galilee>

40) Zagenberg,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546.

41) Ibid. 549.

42) Ibid. 550.

43) 고대의 포도주는 현대의 포도주처럼 완제품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원액에

처럼 곁을 둥글게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입구 아래에 각종 문양을 새겨 아름답게 장식했다. 유대인 거주지에서 발견되는 갈랄은 보통 높이가 1m 정도 되고 75-110 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것들이 있다. 이는 요 2:6에서 두 세 통이 들어가는 6개의 항아리를 연상케 한다.



<사진 1> 돌 항아리, 이스라엘 박물관, 임미영 소장사진

일반적으로 국내외 대부분의 주석은 요 2:6의 유대 정결례에 의해 (*κατὰ τὸν καθαρισμόν τῶν Ἰουδαίων*) 가나의 혼인 잔치에 있었던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작이 어렵고 장식이 아름다우며 당시 헬라 문화의 고급스러운 모습을 따라하기 좋아했던 관습에 의하면 갈랄은 크레터나 칼리스 용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버나움의 회당 곁에서 발견된 돌 항아리의 경우 회당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는데 사용된 것일 수 있다.⁴⁴⁾ 그러나 예루살렘의 1세기 제사장의 집터였을 것으로 보이는 번트 하우스(Burnt House)에서 발견된 돌 항아리들의 경우 함께 발견된 돌로 만든 테이블, 컵, 접시들을 봤을 때 연회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정결법을 지키기 위한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였다면 반드시

물을 섞어 만들었다.

44) 이 돌 항아리는 장식이 없는 현무암 항아리로 전혀 화려하지 않다.

뚜껑이 필요하다;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민 19:15).” 이 둘 항아리들은 대부분 뚜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요 2:6은 정결례에 의해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 두었던 항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정결례에 의해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른 신약 구절(마 12:43; 막 1:26, 3:30, 5:8, 7:25, 눅 11:24 etc.)에서 부정함이나 정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καθαρός*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들이다. 앞서 언급된 마 23:25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역시 *καθαρίζετε*를 사용하고 있다. 막 7:2의 손이 부정하다는 표현은 *αὐτοῦ ὅτι κοιναῖς χερσίν, τοῦτ’*로 오히려 씻다(*κοιναῖς*)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 2:6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결례는 부정함을 씻기 위함을 의미하기보다 돌로 된 재질을 사용하는 정결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본다.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의 유대인 주인은 유대 정결법에 의해 부정함을 타지 않는 돌로 된 항아리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는 이 항아리에 포도주 원액을 넣고 물을 부어 잔치에 제공했을 것이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는 떨어졌다. 예수는 비어 있던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주 원액을 넣지도 않은 채 물만을 부어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이 이 일화의 모습일 것이다. 원액의 질과 맛에 따라, 또한 물과의 비율에 따라 포도주의 맛은 달라질 수 있었다. 예수는 원액 없이 물만으로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둘이 왜 정결법에 어긋나지 않는 물질로 사용되었는지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다만 학자들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질이 바뀌는 금속이나 토기와 달리, 돌로 만든 용기는 제작 과정부터 완성까지 돌이라는 성질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⁴⁶⁾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결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돌로 만든 고급스럽고 값비싼 재질의 용기를

45) H.Geva,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IV*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0), 154-212.

46) Zagenberg,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552.

사용함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면서도 자신들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돌로 만든 용기를 사용했을 때 부정한 것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 이방인들 혹은 로마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점이었을 지도 모른다.⁴⁷⁾

3.3. 무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레 19:1-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민 19:11-13)

성서는 시신이 잘 매장되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치욕적인 일이 없으며 신에게서 받은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했다.⁴⁸⁾ 허버트 브릭토(Herbert Brichto)는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후까지도 공경하라는 뜻이라고 보았다.⁴⁹⁾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의 장례는 물론 묘지를 돌보는 것도 공경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장례를 잘

47) Ibid., 552.

48) 필립 킹/로렌스 스테거, 『고대 이스라엘 문화』, 475.

49) H. C. Brichto, “Kin, Cult, Land and Aferlife-A Biblical Complex,” *HUCA* 44 (1973), 1-54.

치른다고 해서 죽은 자를 가까이 두라는 의미는 아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가까이 한 자는 그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했다. 그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함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민수기 19:13; 19). 시신과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례는 당일에도 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날 무덤으로 시신이 옮겨졌다. “물론 이 날이 유월절 첫 날이기 때문에 매장을 서두르기도 했지만, 또한 시신을 멀리하기 위한 유대 장례 관습에 의해 당일에도 매장을 한 것이다.”⁵⁰⁾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정결법으로 인해 무덤은 도시 밖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쿰란 사본 중 Temple Scroll 48:11-14 에서도 묘지는 도시 밖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루살렘은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 시대는 물론 신약 시대에도 성 밖에 무덤이 위치해 있었다. 예루살렘 도심 반경 7km 이내에 무덤이 밀집해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힌놈의 골짜기, 동쪽으로는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 북쪽으로는 현재 성 에티앙(St. Étienne) 수도원과 히브리대학교가 위치한 스코푸스 산(Mt. Scopus)을 중심으로 무덤들이 발견되었다. 성안이 아닌 성 밖의 벽을 둘러싸고 있는 무덤의 위치는 신구약 시대 각각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를 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때로 예수의 무덤의 위치라고 알려져 있는 무덤교회가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로 그의 시대에 현재 무덤 교회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었다. 41-44년 헤롯 아그립마 1세는 예루살렘 성벽을 북쪽으로 보다 확장하여(유대전쟁사 2:11:6; 5:4:3) 무덤교회는 성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⁵¹⁾

팔레스타인 땅의 기본적인 지질은 석회석으로 신구약시대 모두 자연 동굴이나 산지의 바위를 뚫어 방처럼 생긴 공간을 만들어 무덤으로 사용했다.

50) 임미영,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서울: CLC, 2016), 382.

51) 예수의 무덤과 관련하여 예루살렘 성 밖 북쪽에 위치해 있는 Garden Tomb에 관련된 논의는 임미영,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385-387를 참조.

이러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으나 예수를 위해 내어준 무덤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다는 복음서의 구절(마 27:6; 막 15:46; 눅 23:53)을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구약 시대는 무덤의 중앙 방의 다른 면이나 입구를 제외한 삼면은 다시 바위를 깎아 벤치 형태를 만들어 시체를 눕히도록 되어 있었다. 벤치의 한 쪽에는 머리를 놓는 장소로 말발굽 모양의 돌이 도드라지게 조각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무덤은 한 구 이상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이곳이 가족을 위한 무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년 후 시신이 썩고 나면 뼈들을 모아 벤치 아래 뚫려 있는 저장고처럼 만들어 놓은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⁵²⁾ 학자들은 죽은 자의 뼈들을 모아놓는 관습은 부활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신앙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³⁾

신약 시대의 무덤은 구약 시대처럼 가족 무덤으로, 중앙에 큰 방을 두고 여러 시신을 함께 눕힐 수 있는 것은 같으나 구약 시대의 벤치 대신 로쿨리(*loculi*)라 불리는 구멍을 뚫어 시신을 눕혔다. “시신은 깨끗이 씻었는데 초기에는 미크베에서 씻었지만 후대에 가서는 몸을 씻는 전통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매장이 끝나면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았다.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900여개의 신약 시대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4개의 입구는 둥근 돌로, 나머지는 사각형의 돌로 입구를 막았다.⁵⁵⁾

52) G. Barkay and A. Kloner, “Jerusalem Tombs from the Days of the First Temple,” *BAR* 12:2 (1986), 22-39.

53) L. Y. Rahmani, “Ancient Jerusalem’s Funerary Customs and Tombs, Part Three,” *Biblical Archaeologist* 45:1 (1981), 48-49.

54) 임미영,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384.

55) A. Kloner, “Did a Rolling Stone Close Jesus’ Tomb?” *BAR* 25:5 (1999), 22-29.



<사진 2> 신약 시대 무덤의 형태와 유골함, 예루살렘, 임미영 소장사진

신약 시대 무덤들의 보다 독특한 특징은 무덤 안에서 발견되는 유골함(ossuaries)이다. 석회석으로 만든 이 상자는 뚜껑이 있는 관처럼 생겼으나 길이는 단지 40-60cm 밖에 되지 않는다. 상자 안에는 사람의 뼈가 발견되는데 겉 표면에 한 명의 이름이 써어 있어도 안에는 여러 명의 뼈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구약 시대의 시신이 썩고 난 후 뼈를 모아 무덤의 벤치 아래 저장고에 넣어 두는 관습이 신약 시대에 와서 유골함에 담은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뼈만을 모아 재 매장할 하는 것은 부활 신앙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부활 신앙의 근거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겔 37장 1-14절로 유대인들은 육체적 부활을 믿었다고 본다.⁵⁶⁾ 이자크 라흐마니(Yitzhak Rahmani)는 1세기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부활 신앙이 있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유골함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행 23:6-8에서도 바리새인이 부활과 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어 사두개인과 다투는 장면이 등장한다. 바울은 스스로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말했고 죽의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심문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디 마그네스(Jodi Magness)는 1994년까

56) S. Fine, S. 2001. "Why Bone Boxes? Splendor of Herodian Jerusalem reflected in Burial Practices," *BAR* 27:5 (2001), 39-44.

57) Rahmani, "Ancient Jerusalem's Funerary Customs and Tombs, Part Three," 47.

지 예루살렘 주변에서 발견된 유골함의 개수만도 900개에 가까운 것을 보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도 유골함을 사용했으며 돌을 깎아 만든 유골함이 고가의 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부유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했다고 강조했다.⁵⁸⁾ 그는 부활 신앙 때문에 유골함을 만들어 뼈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 리 레빈(Lee Levine)⁵⁹⁾이나 기드온 포에스터(Gideon Foerster)⁶⁰⁾가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문화에서 당시 유행하던 시네라리아(*cineraria*)의 모방이러는데 동의했다. 당시 로마는 시체를 화장해서 재를 모아 아름답게 장식한 작은 돌 상자인 시네라리아에 담았다. 화장이 금지되어 있던 부유한 유대인들은 돌 상자를 만들어 재 대신 뼈를 모아 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견은 아직도 논의 중으로 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구약 시대부터 이미 뼈를 모아 두는 관습이 있었고, 로마의 시네라리아는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는 발견된 바 없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관습은 아니었다고 본다.⁶¹⁾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유골함이 돌로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유골함은 돌 항아리처럼 그 크기와 장식을 보았을 때 제작이 어려웠기에 값비싼 물품이었지만 마그네스가 주장한 것처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유골함을 사용했고 1세기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 중 일부본이었음은 분명하다. 유골함을 나무나 토기 혹은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돌로 만든 이유는 정결법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신은 부정하기에 그 뼈도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결법에 의하면 돌로 만든 그릇에 부정한 뼈를 담으면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⁶²⁾

58) J. Magness, "Ossuaries and the Burials of Jesus and Jam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4:1 (2005), 133-135.

59) L.I. Levine, *Jerusalem: Portrait of the Cit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538 B.C.E.-70 C.E.)*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2), 264-265.

60) G. Foerster, "Ossilegium and Ossuaries: The Origins and Significance of a Jewish Burial Practice in the Last Decades of the 1st Century B.C. and the 1st Century A.D.," *The XV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lassical Archaeology* (Amsterdam, 1998), Abstracts.

61) L.Y. Rahmani, et.al., *Catalogue of Jewish Ossuaries: in the State of Israel*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4), 58-59.

3.4. 미크베(מִקְוֵה)

.....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레 15:1-27)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은 물에 씻거나 담그면 깨끗해질 수 있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은 유출병과 관련하여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이 사람과 동침한 사람도 부정해 지기 때문에 몸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다. 시체를 만진 이들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 깨끗해 질 수 있었다(민 19:13). 전장에서 가져온 노획물들 중에 금속 같은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한 후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했으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민 31:23). 레위기 11장 36절은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부정해진 사람이나 물건은 이 웅덩이에 담그거나 이 물을 뿌려 깨끗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가 흔하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기후 아래 구약 시대 어떻게 이러한 물이 사용되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신약에는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그는 기록은 없다. 마가 복음 7장 1-5절에서 이러한 관습이 잠깐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결법을 거론하며 예수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들 스스로는 정결법에 의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거나 목욕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아니하며, 잔과 주발과 냇그릇을 씻었기 때문에,

62) Zagenberg,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553.

따져 물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유사한 관습을 찾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예수 역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다(마 3:1-17; 막 1:1-11; 눅 3:1-22; 요 1:19-28).

미쉬나 토호로트에는 미크바웃(מִיקְוֹת), 미크베의 복수)이라는 섹션을 따로 마련하여 부정해진 자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을 담그는 규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크베는 사람이 몸을 담글 만큼 깊은 시설이어야 했다. 미쉬나에 의하면 구약의 정결법처럼 다음과 같은 경우 미크베에 몸이나 도구를 담가야 했다. 여인이 생리가 끝났거나 출산을 한 이후 남편과 성관계를 갖기 전, 남자의 사정 이후, 유대교로 개종할 때, 새로 산 음식용 그릇이나 도구를 쓰기 전, 장례를 준비하는 시신. 유대교에서는 현대에도 미크베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회당이나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미크베와 같은 시설이 사용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한 때 미크베의 전통에 대한 권위가 의심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의심을 해결해 준 발견이 1960년대 쿨란⁶³⁾과 마사다⁶⁴⁾에서 있었다. “암반을 사람이 잠길 만큼 깊게 파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며 비나 샘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⁶⁵⁾ 시설이 발견된 것이다. 시설의 인쪽은 방수를 위해 여러 번 회칠을 한 흔적도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학자들은 물론 랍비들을 흥분시켰고 이 시설은 의심없이 미크베로 명명되었다.⁶⁶⁾ 스테파니 호스(Stephanie Hoss)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63) B. G. Wood, “To Dip or to Sprinkle? The Qumran Cisterns in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56 (1984), 45-60.

64) A. Grossberg, “The Miqva’ot (Ritual Baths) at Masada,” J. Aviram, G. Foerster, and E. Netzer, eds., *Masada VIII: The Yigael Yadin Excavations 1963-1965: Final Report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7), 95-126.

65) E. P. Sanders,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 BCE-66 CE* (London: SCM Press, 1992), 223.

66) Zagenberg,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지금까지 헬라시대부터 비잔틴시대에 사용한 600개 이상의 미크베가 쿨란과 마사다 외에도 예루살렘, 여리고, 짜포리 등에서 발견되었다.⁶⁷⁾ 가장 오래된 미크베는 기원전 1세기 중반 하스모니아 시대로 연대가 측정되는데 회당의 시작 연대와 유사하다.⁶⁸⁾ 미크베의 크기는 유적지마다 다양하지만 적어도 500리터 이상의 물이 채워질 정도로 깊었다. 모든 미크베가 쿨란처럼 비나 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수로가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짜포리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물 저장고에서 길어다 채웠는데 이때 돌로 된 그릇을 사용했을 것이다. 미쉬나 베이짜(מִשְׁכָּה, 달걀, 좋은 날) 2:3에 의하면 돌로 된 그릇에 물을 담아 미크베에 옮기면 그 물은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⁹⁾ 일부 미크베의 계단은 낮은 담을 쌓아 양 쪽을 나누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크베로 몸을 담그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과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 서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나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진 3> 신약 시대 미크베의 흔적, 예루살렘, 임미영 소장사진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541.

67) S. Hoss, *Baths and Bathing: The Culture of Bathing and the Baths and Thermae in Israel from the Hasmoneans to the Moslem Conquest (with an Appendix on Miqwa'ot)*,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International Series 1346, (Oxford: Archaeopress, 2005).

68) Zqgenberg,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543.

69) Magen, *The Stone Vessel Industr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Excavations at Hizma and the Jerusalem Temple Mount*, 141-44.

미크베가 마치 욕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목욕문화가 발달했던 헬라 문명의 영향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노만 골브(Norman Golb) 같은 경우 쿨란 유적지에는 약 750명의 사람이 동시에 살았고 한 사람 당 하루에 6 리터의 물을 마셨을 경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크베는 정결을 위한 물 보다는 식용을 위한 물을 담아 두었던 시설이라고 주장했다.⁷⁰⁾ 쿨란의 미크베와 물 저장고 바닥에 흠이 많이 쌓여 있어 이자크 마겐(Yitzak Magen) 과 유발 펠렉(Yuval Peleg)은 이 시설이 토기를 만들기 위한 진흙을 두었던 장소라고 보기도 했다.⁷¹⁾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강조되어 온 정결법과 더불어 미쉬나에 묘사되어 있는 미크베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시설을 미크베가 아닌 다른 시설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미크베는 한 때 알려졌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쿨란에서 거주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에세네파의 사용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왔던 정결법의 일부분이었다. 신약 시대의 미크베가 일반 가정, 회당 근처, 밭 근처, 산업 시설 안, 성전 근처, 무덤 근처 등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에 앞서 정결탕에 몸을 담구는 것에 익숙했을 것이다. 종교적 정결을 위해 몸을 씻는 관습은 고대 사회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미크베 같은 시설은 유대인의 거주지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된 바 없기⁷²⁾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독특한 관습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70) N. Golb, “Khirbet Qumran and the Manuscript Finds of the Judaeen Wilderness,” N. Golb, et.al., *Methods of Investigation of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Khirbet Qumran Site*, vol. 722 (New York: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94), 51-72.

71) Y. Magen and Y. Peleg, “Back to Qumran: Ten Years of Excavations and Research, 1993-2004,” K. Galor, Jean-Baptiste Humbert, and Jurgen Zangenberg, eds., *The Site of the Dead Sea Scrolls: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s and Debates*, Studies on the Texts of the Desert of Judah, Vol. 57 (Leiden: Brill, 2006), 55.

72) Zangenberg,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544.

4. 나가는 말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결법은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과 구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음이 분명하다. 정결법은 구약의 관습이 신약 시대까지 전수되는 연결고리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정결법이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는 흔적은 많지가 않다. 신약에서 정결법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일화와 함께 종종 등장하기도 했지만 쿨란, 마사다, 예루살렘 등의 주요 유대인 유적지에서 돼지 뼈, 돌로 만든 용기, 무덤, 미크베 등의 독특한 문화적 흔적으로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결법은 같은 시대 다른 민족이나 나라와 유대인들을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좁은 입지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와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심어 줬을 것이다.⁷³⁾ 정결법의 실천 아래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후대 미쉬나 같은 랍비 문헌에서는 그 법이 더 강화되었다. 심지어 정결법은 현대에도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적 관습으로 그들 민족의 뿌리를 구약에서부터 찾는 도구가 되고 있다.

<주제어>

정결법, 돼지 뼈, 돌 항아리, 무덤, 정결탕(미크베)

<Key words>

Purity Law, Pig bones, Stone vessels, Tombs, Miqvaot

* 접수일 2018년 2월 15일, 수정일 2019년 9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9월 27일

73) Hentrich, "The Purity Laws as a Source for Conflic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20.

참고문헌

- 이윤경,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 「구약논단」 15:4 (2009), 141-161.
- 이윤경, “쿰란공동체의 안식일 이해: 안식일 법, 정결례, 예식,” 「신학사상」 149 (2010), 41-64.
- 임미영,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었는데가?” 「이스라엘연구」 1 (2009), 49-63.
- 임미영,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성경마당」 가을호 (2011), 123-132.
- 임미영,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서울: CLC, 2016.
- 필립 킹/로렌스 스태거, 『고대 이스라엘 문화』, 임미영 역, 서울: CLC, 2014.
- Barkay, G. and Kloner, A., “Jerusalem Tombs from the Days of the First Temple,” *BAR* 12:2 (1986), 22-39.
- Bloch-Smith, E., “Israelite Ethnicity in Iron I: Archaeology Preserves What is Remembered and What is Forgotten in Israel’s History,”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2:3 (2003), 401-425.
- Brichto, C. H., “Kin, Cult, Land and Aferlife-A Biblcial Complex,” *HUCA* 44 (1973), 1-54.
- Croft, P., “Archaeozoological Studies,” D. Ussishkin, e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Tel Aviv: Emery and Claire Yass Publications in Archaeology, Institute of Archaeology, Tel Aviv University, 2004, 2254-2348.
- Douglas, M.,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2003.
- Finkelstein, I., “Pots and People Revisited Ethnic Boundaries in the Iron Age I,” N. A. Silberman and D. Small, eds., in *The Archaeoogy of Israel: Constructing the Past, Interpreting the Present*, Sheffield: Jsots Series, 2003, 216-237.
- Fine, S., “Why Bone Boxes? Splendor of Herodian Jerusalem reflected in Burial Pracitces,” *BAR* 27:5 (2001), 39-44.
- Foerster, G., “Ossilegium and Ossuaries: The Origins and Significance of a

- Jewish Burial Practice in the Last Decades of the 1st Century B.C. and the 1st Century A.D.,” *The XV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lassical Archaeology*, Amsterdam, 1998, Abstracts.
- Geva, H.,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IV*,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0.
- Gibson, S., “Stone Vessels of the Early Roman Period from Jerusalem and Palestine. A Reassessment,” G. C. Bottini et al., *One Land—Many Cultures: Archaeological Studies in Honor of Stanislaw Loffreda OFM*, Studium Biblicum Franciscanum, Collectio maior 41, Jerusalem: Franciscan Printing Press, 2003, 287-308.
- Golb, N., “Khirbet Qumran and the Manuscript Finds of the Judaean Wilderness,” N. Golb et al., *Methods of Investigation of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Khirbet Qumran Site*, vol. 722, New York: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94, 51-72.
- Grantham, B. J., *Modern Buata and Ancient Qazrin: The Ethnoarchaeology of Cuisine in the Golan Heights*, MA thesis: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Alabama, 1992.
- Grossberg, A., “The Miqva’ot (Ritual Baths) at Masada,” J. Aviram, G. Foerster, and E. Netzer, eds., *Masada VIII: The Yigael Yadin Excavations 1963–1965: Final Report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7, 95-126.
- Hentrich, Th. “The Purity Laws as a Source for Conflic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AJBI* 30-31 (2004-2005), 5-21.
- Hesse, B. and Wapnish, P., “Can Pig Remains be Used for Ethnic Diagnosis in the Ancient Near East?” N.A. Silberman and D. Small, eds., *The Archaeology of Israel: Constructing the Past, Interpreting the Present*, Sheffield: Jsots Series, 1997, 238-270.
- _____, “Archaeozoology,” A. Reader and S. Richard, eds., *Nea Eastern Archae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17-26.
- Hoss, S., *Baths and Bathing: The Culture of Bathing and the Baths and Thermae*

- in Israel from the Hasmoneans to the Moslem Conquest (with an Appendix on Miqva'ot)*,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International Series 1346, Oxford: Archaeopress, 2005.
- Horwitz, L., Tchernov, E. and Dar, S. 1990. "Subsistence and Environment on Mount Carmel in the Roman Byzantine and Medieval Periods: The Evidence from Kh. Sumanqa," *Israel Expedition Journal* 40 (1990), 287-304.
- Klawans, J.,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Kloner, A., "Did a Rolling Stone Close Jesus' Tomb?" *BAR* 25:15 (1999), 22-29.
- Levine, L. I., *Jerusalem: Portrait of the Cit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538 B.C.E.-70 C.E.),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2, 264-265.
- Magen, Y., *The Stone Vessel Industry in the Second Temple Period: Excavations at Hizma and the Jerusalem Temple Mount*. Judea and Samaria Publications 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2.
- Magen, Y. and Peleg, Y., "Back to Qumran: Ten Years of Excavations and Research, 1993-2004," K. Galor, Jean-Baptiste Humbert, and Jurgen Zangenberg, eds., *The Site of the Dead Sea Scrolls: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s and Debates*, Studies on the Texts of the Desert of Judah, Vol. 57, Leiden: Brill, 2006, 55-113.
- Magness, J. "Ossuaries and the Burials of Jesus and Jam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4:1 (2005), Spring, 121-154
- Prevel, C. and Nihan, C. eds.,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Volume: 3, Leiden: BRILL, 2013.
- Rahmani, L.Y., "Ancient Jerusalem's Funerary Customs and Tombs: Part Three," *Biblical Archaeologist* 45:1 (1981), 43-53.
- Rahmani, L.Y. et.al., *Catalogue of Jewish Ossuaries: in the State of Israel*, Jerusalem:

-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4.
- Reich, R. “Miqwa’ot at Khirbet Qumran and the Jerusalem Connection,”
L. H. Schiffman, E. Tov, J. C. VanderKam, and G. Marquis, eds.,
The Dead Sea Scrolls: Fifty Years After Their Discovery,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 Sanders, E.P.,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 BCE-66 CE*, London: SCM Press,
1992.
- Schwartz, J. ed., *Purity and Holiness. The Heritage of Leviticus, Jewish and
Christian Perspectives Series 2*, Leiden - Boston - Cologne: Brill, 2000.
- Urman, D., *The Golan* (BAR International Series, 269),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1985.
- Wood, B. G., “To Dip or to Sprinkle? The Qumran Cisterns in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56, 1984, 45-60.
- Zagenberg, J., “Pure Stone: Archaeological Evidence for Jewish Purity Practices
in Late Second Temple Judaism (Miqwa’ot and Stone Vessels),” C.
Prevel and C. Nihan, eds., *Purity and the Forming of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and Ancient Judaism,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Volume: 3, Leiden: Brill, 2013, 537-572.
- <https://www.biblicalarchaeology.org/daily/ancient-cultures/daily-life-and-practice/jewish-purification-stone-vessel-workshop-galilee/>

<초록>

신약 시대 구약의 정결법 실천에 관한 고고학적 고찰

임미영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결법은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과 구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음이 분명하다. 정결법은 구약의 관습이 신약 시대까지 전수되는 연결고리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정결법이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는 흔적은 많지가 않다. 반대로 신약에서는 정결법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일화와 함께 등장하기도 하면서 동시대 주요 유대인 유적지(쿠파란, 마사다, 예루살렘 등)에서도 돼지 뼈, 돌로 만든 용기, 무덤, 미크베 등의 독특한 문화적 흔적으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정결법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동물학 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1-3 세기 유대인이 주로 살았던 거주지에서 돼지 뼈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돼지를 식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돼지처럼 부정한 음식을 담은 그릇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정한 물질을 담았던 흙으로 만든 그릇(토기)의 경우 다음에 담길 것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깨뜨려야만 했다. 이러한 정결법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물질은 돌로 돌로 만든 그릇은 물로 씻으면 다시 정결해 질 수 있었다. 덕분에 1 세기 유대인들은 돌로 만든 그릇을 선호했고 이 시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유적지에서는 다량의 돌로 만든 그릇들이 발견되었다. 요한복음 2:1-11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돌 항아리는 이 정결법을 지킨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

고 있는 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결법을 지키는 모습의 또 다른 예제는 조상들의 뼈를 돌로 만든 유골함에 담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뼈는 깨끗하지 않았지만 돌 용기 안에 넣었을 때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시신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정결법 덕분에 무덤은 성 밖에 만들어졌고 시체가 썩고 나면 뼈만 모아 돌 유골함에 담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만약 시신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다시 정해지는 방법은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었다. 미쉬나 (Mishnah)는 부정한 몸을 미크베(miqveh, 정결탕)에 담으면 정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과 쿰란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이 남겨 놓은 1세기의 흔적들에서는 사람이 잠길 만큼 임반을 깊게 파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조의 미크베로 보이는 시설물이 발견되었다. 미크베에는 비나 샘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수로가 연결되어 있다.

유대인의 정결법은 같은 시대 다른 민족이나 나라와 그들을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좁은 입지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와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심어 줬을 것이다. 정결법의 실천 아래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후대 미쉬나 같은 랍비 문헌에서는 그 법이 더 강화되었다. 심지어 정결법은 현대에도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적 관습으로 그들 민족의 뿌리를 구약에서부터 찾는 도구가 되고 있다.

<Abstract>

Archaeological Studies of the Purity Law Practice in the time of the New Testament

Adjunct prof. Mi Young Im
(An Yang University)

The purity law in the Old Testament (Leviticus, Numbers, and Deuteronomy) emphasizes what is unclean for the Israelites. The law distinguishes themselves from the surrounding ethnic groups until the New Testament times. Unfortunately, due to few physical traces, it is hard to identify how this law was practiced in OT times. However, archaeological remains such as pig bones, stone vessels, tombs, and miqvaot found in the Jewish sites (Qumran, Masada, and Jerusalem, etc) show that the purity law has been strongly practiced by Jews in NT times, as well as the anecdotes of Jesus with his disciples tell us how this law was practiced.

Since the purity law regards pigs as unclean, only few pig bones were found among archaeozoological remains in the 1st-3rd century A.D. Jewish sites. The bowl containing the unclean things would also be impure, so the bowl could be immersed in water and became clean. The earthen vessel containing the unclean materials must be broken so that the next food would not be impure. To avoid this impurity, the first century Jews preferred stone vessels which need not to be broken like potteries. Stone vessels have been found in the Jewish sites dating to this time. Also, John 2:1-11 supports that there were stone jars in Cana, the Jewish village, following the purity law. Ossuaries in which Jews kept their ancestors' bones were also made of stone. Although

bones were unclean, it became no longer unclean when it was placed inside stone vessels. Since dead bodies were unclean, tombs were to be located outside the city walls in biblical times. Unclean people could be cleaned if they washed with clean water. Mishnah insists the purity when unclean bodies were immersed and washed in miqvaot. The 1st century A.D. miqvaot(sing. miqveh) found in Jerusalem and Qumran were dug into rocks deep enough for men's bodies stepping down with stairs and connected to the waterways through which rain or spring water could flow.

The purity law seems to make Jews have ethnic superiority of their religion, separating themselves from their contemporary peoples. Practicing the law, they had a sense of one Jewish nation, and thus later rabbinic documents such as Mishnah more emphasized it. Modern Jewish people still find the origin of the unique religious practice in Torah in which they trace back to their roots.